

기업 지원 · 인재양성 나선다

전북대 LINC+ 사업, 5년 250억 정부 지원...지역 특성 활용한 사업 추진

지난 4월 정부 핵심 지원사업인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육성사업(이하 LINC+ 사업)'에 선정된 전북대학교가 28일 오후 2시30분 공대 8호관에서 사업단 개소식 및 현판식을 갖고 본격 사업 시작을 알렸다.

이 사업은 지난 5년간 시행됐던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사업)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전북대는 2012년부터 지역 기업과의 산학협력 강화와 맞춤형 인재양성을 통해 최우수 평가를 받은 이후 또다시 5년간 2백50억여 원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남호 총장을 비롯한 대학 보직자들과 전라북도 및 전주시 지자체 관계자, 연구소 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사업단의 시작을 함께 축하했다.

이에 따라 전북대 LINC+사업단은 '에너지 융합, 농·식품, 전통문화' 등 지역적 특성을 적극 활용해 지역사회의 성장과 더불어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산학협력 역량 강화를 위한 총괄 기구인 'CBNU-ICC'를 설치, 지역사회 연계형 산학협력 협의회를 구축해 기업을 지원하고 산업체가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들을 실시해 우수한 창의 인재 양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한 지난 5년간의 LINC사업을 통해 체계화된 신재생에너지 및 한류분야를 계승하고 전북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에너지융합과 농식품산업, 전통문화산업 등을 특화 분야로 선정, 융합형 실무 전문가 양성에 나선다.

이를 위해 'Think TOM'과 'EAT어빌리티 인증제', '레벨업마스터'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학생 진로지도와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5-STEP 교육프로그램과 'New 실크로드 시스템' 등의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사물인터넷(IoT)과 정보통신기술(ICT), 3D프린트, 드론 등의 체계적인 교육도 확대 운영한다.

이남호 총장은 "전북대 LINC사업은 특화된 산학협력 시스템 구축과 기업 지원 우수 인재 양성 등에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며 "이러한 우수성을 발판 삼아 LINC+ 사업에서도 대학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해은 기자

삼천2동 행정복지센터 재난안전도우미 발대식 개최

전주시 완산구 삼천2동 행정복지센터는 28일 휴지기 독거노인을 특별 관리할 '재난안전도우미' 발대식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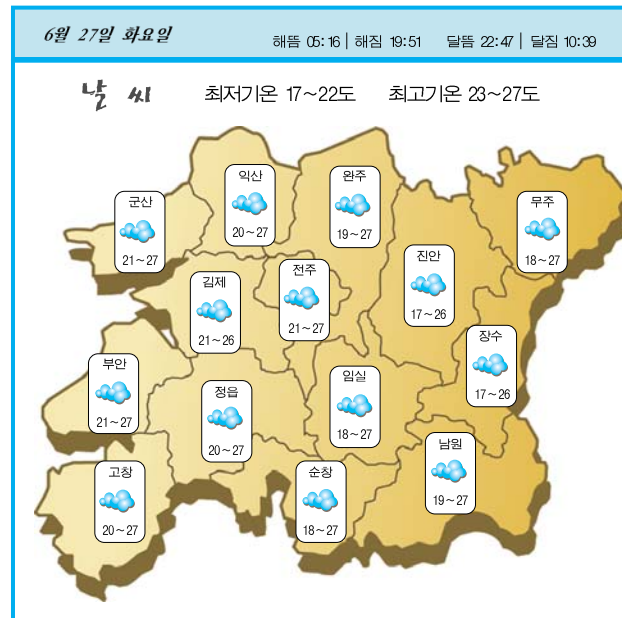
삼천2동은 지역실정에 밝고 주민과 유대감 형성이 긴밀한 통장을 재난안전도우미로 위촉해 지역 돌봄 체계를 확고히 할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을 통해 재난안전도우미 활동 사항들을 점검하고 휴지기 대비 모니터링 활동을 본격화 했다.

재난안전도우미로 위촉된 통장들은 폭염주의보·경보 발령 시 연계된 독거노인 가정을 직접 방문해 안부확인 등 물론 냉방기 작동여부 등 세심하게 살필 계획이며, 응급상황 발생 시 안전대책이나 무더위 쉼터 등 안내도 지속할 예정이다.

안병식 동장은 "재난안전도우미 운영을 통해 독거노인들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촘촘히 구축하고 주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삼천2동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북대 아타울 라만 대학원생 한국수정란이식학회 학술대회 우수 포스터상 수상

전북대학교 아타울 라만 대학원생이 최근 충남대학교에서 열린 2017년도 한국수정란이식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우수 연구로 우수 포스터상을 수상했다.



time on gene expression related to motility and apoptosis에 대한 연구로 우수 포스터상을 수상했다.

라만 대학원생은 이번 연구를 통해 개의 정액 동결 시 사용되는 글리세롤의 독성을 배제하고 수가를 응용해 비독성 정액 동결 희석액을 개발했고 관련 유전자 관련 유전자 발현실험을 통해 그 효과를 입증하였다.

동결용 희석액의 개발은 급증하고 있는 반려견 뿐 아니라 가족의 정액을 이용한 동결정액의 생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해은 기자

전주지역자활센터-한별여성병원 업무협약 체결

친환경 천기저귀 사용 실천

전주지역자활센터는 28일 지역 산부인과 병원인 한별여성병원과 친환경 천기저귀 사용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영아들에게 보다 나은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천기저귀를 제공하고, 친환경 의식 전환을 위한 정보공유 및 교육 활동 등 다양한 친환경 실천 활동을 추진키로 뜻을 모았다.

전주지역자활센터 보드레기저귀사업단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천기저귀 토달서비스는 환자와 아이를 생각해 천기저귀를 영아

가정이나 기관에 공급하고, 사용한 기저귀를 수거해 깨끗하게 세탁과 살균, 포장한 뒤 다시 배달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전주지역자활센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환경과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천기저귀 사용이 전주에서 많아지길 희망한다"며 "건강한 지역을 만드는데 기업과 기관이 더욱더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주지역자활센터에는 총 16개 자활사업단이 운영되고 있으며, 280여 명의 저소득층 주민이 취창업 및 탈수급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인재용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전주시, 대한민국 독서대전 실무추진단 발족

독서대전 성공개최 위해 효율적 사업계획 수립

전주시가 국내 최대 규모의 독서행사인 '대한민국 독서대전'의 성공개최를 위해 실무추진단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

시는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내 문화기획 전문가와 주최, 주관기관의 행정 실무자, 출판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대한민국 독서대전 실무추진단 발족식'을 가졌다.

이철수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을 단장으로, 한공수 총괄감독과 이재규 기획단장을 비롯한 문화기획 전문가와 행정 실무자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 실무추진단은 올해 독서대전의 성공개최를 위해 효율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실무추진단은 올해 독서대전의 평가보고회가 끝나는 오는 10월 까지 지역 내 문화기획 전문가는 기획위원으로 주최, 주관, 후원기관 및 행정실무자들은 실무추진위원으로 각각 활동하면서 기본계획 수립과 행사 추진방안 마련, 성과보고에 대한 의견제시 등을 맡게 된다.

이날 발족식에서는 38명의 실무추진단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독서대전의 기본계획 발표와 기관·단체별 역할 공시, 성공 추진방안 토의 등이 이뤄졌다.



전주시는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17년 대한민국 독서대전 실무추진단 발족식'을 가졌다.

또한 실무추진단은 수준 높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올해 독서대전을 독서의 즐거움을 재발견하는 대한민국 독서문화 축제를 만들 것을 다짐했다.

실무추진단은 앞으로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 전국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성공적인

행사를 만들 예정이다.

실무추진단장을 맡게 된 이철수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이번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대한민국 문화의 중심지 전주에서 개최되는 만큼 실무추진단이 서로 협력하고 소통해 누수 없는 행사를 준비하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책을 사랑하는 계기가 되고 평생의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7 대한민국 독서대전'은 출판, 도서, 도서 관계자와 독서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 한자리에 모이는 전국 최대 규모의 독서행사로, 오는 9월 1일부터 3일까지 경기전과 한국전통문화전당 등 한옥마을 일대에서 개최된다.

/인재용 기자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_ 두 번째 이야기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등교시간 늦추기로 아침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

“달라진 모습이에요? 부모님과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가기 때문에 힘들었던 아침수업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 조아현 (군산남고 1학년)

“가만히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고 몇 마디 전내는 대화 속에서 그동안 서먹해졌던 관계가 신기하게도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신혜원 (두 아이의 엄마)

“확실히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허둥지둥 뛰어 오는 아이들이 줄어서 생활지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수업준비도 충실하게 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 박은희 (옥구초 교사)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학교를
바라보는
행복한 교육

“아침이 행복한 학교”는 학생의 과중한 학습부담을 줄이는 한편 가정의 '보금자리'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시작된 따뜻한 교육정책입니다.